

#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b>아름다운재단</b>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싸한홍어</b>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b>대게직거래장터</b>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 다이어트 쇼플론은	031-783-6007
<b>비타샵</b>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공장사랑</b>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b>수아비스화장품</b>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b>매트리스엠</b>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b>내피알</b>	nepr.co.kr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점</b>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2016년 10대 뉴스 ③ ④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 ③ 성주 사드 배치...최순실 개입 의혹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배치를 둘러싸고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두드러졌던 올 한해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나라의 군사적 동태를 살피기 위한 미국의 전략성이 개입돼 있다, 중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무부처인 국방부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결정 과정에서 전혀 인지한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사드 결정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중국의 한국을 상대로 한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진출이 차단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 ④ 구의역 김 군 사망 사고...헬조선 청춘 참사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선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 업체 직원 19살 김 모 군이 들어오던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이었음에도 서울메트로는 처음에 김 군의 과실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이 고단한 우리 청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시민들은 구의역 역사에 추모의 메시지를 담은 메모지를 붙이고 국화꽃을 헌화했습니다. 청년에게 꿈을 주지 못하는 나라 또 공공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 사회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 12월 27일(화) 1부 | '반기문 금품수수' 계좌추적으로 확인했다

[오프닝] 2016년 10대 뉴스 ③ 사드 결정 ④ 구의역 참사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박연차 수사팀, 반기문 뇌물 확인하고도 혐의 덮었다"
- "김기춘과 수시 통화 김진태, 정운회 집 압수수색 막아"
- 정호성 "박근혜 인사 발표 내용, 최순실이 고쳤다"
- [뉴스듣기능력평가] 'Last Christmas' 된 팝 가수 관련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인도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성공에 중국 불쾌한 이유
- [경제의 속살] 이원배 민중의소리 기자
- 기내난동 임범준, 자분의 폭력성 적나라하게 보여주다
- '라면의 상식화' 김기춘 발언으로 본 '공업용 우지' 사태
- [공화국 논평] 네티즌수사대 자료에 대한 중대 조치

**‘정치검찰’ 사라져야**

**TV조선 검찰, 반기문 금품수수 혐의 덮었다**

2008년 박연차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계좌추적으로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이 약 3억 원을 건넨 것을 확인했으며 박연차의 진술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건 국가적 망신"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TV조선의 충격적인 보도.

**한겨레 김기춘, 정윤희 압수수색 막았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기간에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의하면 김진태가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후로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한다. 또한 2014년 말 이른바 '정윤희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윤희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김진태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로 밝혀졌다. 김기춘이 김진태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문고리의 증언**

**경향신문 정호성 “차 인사발표 →崔 수정”**

어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는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비공개 접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대통령 박근혜가 말씀 자료를 보내주면 최순실이 의견을 말하고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최순실의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일보 “박근혜, 세월호 때 피곤해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 정호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를 오후 2시가 돼서야 처음 면담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의 일정이 뻑뻑했는데 참사 당일만 유독 비어 있었고 박근혜가 그날 매우 피곤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폰으로 대화를 했는지, 대면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또한 박근혜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선 “박근혜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모른다더니 점점 말이 바뀐다. 더 털면 사실을 이야기할 것 같다.

**공작의 왕 김기춘**

**매일경제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찾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위증, 증거인멸 의혹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東亞日報 블랙리스트 김기춘 개입했나 수사**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기춘의 교감 하에 대통령 정무수석실 등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기춘의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수사 중이다. 특검은 또한 김기춘의 자택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차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기춘과 조윤선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박근혜의 크리스마스**

**동생 박근령, 문전박대 당했다**

대통령 박근혜의 동생 박근령 씨는 채널A와 나는 문자 대화에서 "크리스마스라 포인세티아 화분과 함께 연하장을 써서 갔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당일 언니를 면회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간 것인데, 박근혜는 동생을 문전박대했다. 최순실은 프리패스하는 청와대를 말이다.

12월 29일(목)  
**13시 전주 인후동 갈보리교회**  
**19시 광주 금남로 YMCA**  
김용민·브리핑·호남·공개·방송  
이원배 기자 출연

이게 나라인가

東亞日報 최순실, 독방에서 특혜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이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다. 일반 수용자들은 식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하루 4만 원이지만 최순실은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한 번에 1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최순실은 2, 3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수감자가 구매목록을 직접 작성한 뒤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도 최순실은 교정시설 관리인이 물품을 먼저 건네고 구매목록을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던 수용자는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다.

허술한 국민연금

한국일보 특검, 문형표·홍완선 영장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박근혜의 뇌물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홍완선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특검에 제출했다. 또한 한 복지부 간부는 특검 조사에서 “문형표가 ‘삼성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 545조 국민연금, 허접하게 운영

중앙일보가 2010년 이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전수 조사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평균 1년에 다섯 차례 열렸으며 밥을 먹으면서 두 시간 동안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에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것도 아니었다. 위원 20명 가운데 평균 13명만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일보 기금운용위원, 거수기·비전문가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20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이고 위촉위원 가운데 시민단체 몫은 정부 입맛에 맞는 곳으로 채워진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이다. 자영업자 대표 몫의 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3년 넘게 공석이다. 또한 각계 추천 위원들 역시 자산운용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방역 비상

서울신문 최악 AI, 산업기반까지 흔든다

AI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AI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40일 만에 국내 전체 가금류의 약 16%인 2600만 마리가 도살됐거나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빵·제과, 육가공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AI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경우 일본처럼 사육 기반을 잃고 수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조직범죄 방지 리코법 제정해야”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에 기고한 박창기 불특체인 OS 대표의 독자기고 “박근혜식 국정과 탄, 재발 막으려면 ‘리코법’ 제정해야”다.

“미국에서라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어떤 법으로 처벌할까? 조직범죄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리코법(RICO Act)이다. 미국은 1970년 제정한 리코법을 활용하여 마피아와 엘리트 조직범죄 소탕에 성공했다. 조직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지속적이지만 적발도 처벌도 어렵다. 은밀하게 지시하는 자와 실행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리코법은 조직범죄 집단이나 기업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본인이 그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면 이익을 전부 몰수한다. 범죄조직의 한두 사람을 잡아넣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강제소환 및 형사적 최고형 구형이라는 강경한 수단도 부여한다. 미국은 이 법을 활용해서 기업의 담합범죄, 금융사기, 공무원의 뇌물과 접대 같은 적발이 어려운 조직범죄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